

조사보고서

2023-2

2023년 2/4분기

# 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

2023. 4



## I. 조사의 개요

### 1. 조사목적

-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정부 및 시·도 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

### 2. 조사기간, 조사방법

- ◆ 2023년 1/4분기(1, 2, 3월) : 실적기간
- ◆ 2023년 2/4분기(4, 5, 6월) : 전망기간
- ◆ 조사기간 : 2023. 3. 17. ~ 2022. 3. 30. (휴일제외 10일)
-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3. 조사대상

-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
- ◆ 응답개수 : 70개 (설문지 회수율 : 37.6%)

### 4. 조사내용

-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 5. 집계·분석

- ◆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처리

### 6. 기업경기 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 ◆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

기업 경기 실사지수(BSI)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증가(+)}\text{표시업체 수} - \text{감소(-)}\text{표시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 ◆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

## II.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

### 1. 종합전망

#### 가. 개황

- ◆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설문지 회수 : 70개, 회수율 : 37.6%)으로 2023년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2.9’로 조사되었음.
- ◆ 이중, 석유화학 연관업종(n=36개)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BSI)는 ‘102.8’임

#### 나.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

#### 【종합 (N =70)】

구 분 항 목	전체	
	2023년 1/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3년 2/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58.6	102.9
매출액	65.7	98.6
영업이익	65.7	92.9
설비투자	84.3	100.0
공급망안정성	87.1	101.4
공장가동여건	82.9	105.7

**【석유화학 연관업종(N=36)】**

구 분	항 목	전체	
		2023년 1/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3년 2/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58.3	102.8
	매 출 액	72.2	94.4
	영업이익	69.4	86.1
	설비투자	80.6	97.2
	공급망안정성	83.3	97.2
	공장가동여건	80.6	105.6

**【일반업종(N=34)】**

구 분	항 목	전체	
		2023년 1/4분기 실적 (전 분기 대비)	2023년 2/4분기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 경기	58.8	102.9
	매 출 액	58.8	102.9
	영업이익	61.8	100.0
	설비투자	88.2	102.9
	공급망안정성	91.2	105.9
	공장가동여건	85.3	105.9

**2. 설문 결과 분석**

- ◆ 2023년 2/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BSI, n=70)는 ‘102.9’로 조사되었다. 응답 개수 : 70개 (설문지 회수율 : 37.6%)
- ◆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인 100보다 큰 값으로 “긍정적”인 결과다.
- ◆ 2023년 2/4분기 체감경기 추이는 지난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 89.4(2019년 3분기)→ 70.6(2019년 4분기)→ 94.1(2020년 1분기)→ 73.2(2020년 2분기)→ 58.0(2020년 3분기)→ 44.1(2020년 4분기)→ 65.2(2021년 1분기)→ 91.5(2021년 2분기)→ 83.8(2021년 3분기)→ 89.3(2021년 4분기)→ 88.4(2022년 1분기)→ 97.1(2022년 2분기)→ 62.3(2022년 3분기)→ 73.8(2022년 4분기)→ 89.4(2023년 1분기)→ 102.9(2023년 2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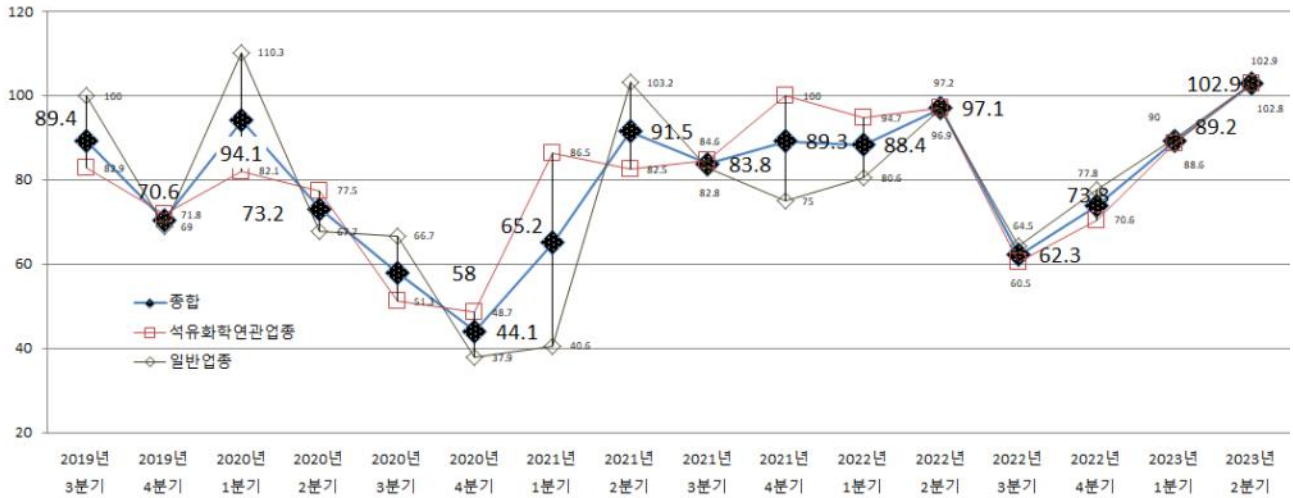


그림 BSI 추이 (2019년 3/4분기 ~ 2023년 2/4분기)

- ◆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과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조치 등으로 인한 수요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추이에 있던 기업경기전망지수의 상승세가 금번 분기에도 이어졌음. (89.4 → 102.9)
-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대비 13.9 상승,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대비 12.9 상승하면서 업종에 구분 없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석유화학 및 일반 업종 모두 경기전망지수 100을 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음.
  - 석유화학 연관업종 : 88.9(23년 1/4분기)→102.8(23년 2/4분기), 13.9 상승
  - 일반제조 업종 : 90.0(23년 1/4분기)→102.9(23년 2/4분기), 12.9 상승
- ◆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우, 원가부담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산업 생산 증가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노마스크 전환에 따른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부정적이었던 체감경기가 100을 넘는 긍정적 수치를 나타냈다고 분석하였고(88.9 → 102.8)

- ◆ 일반제조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기대보다 둔화되고 있는 경기환경에도 불구하고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조치 등 기대감 지수가 개선되어 100을 넘는 경기전망지수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음.(90.0 → 102.9)
- ◆ 2023년도 2/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회복의 정도와 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최대 수출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자급률 상승과 그린 전환 정책 강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향후 경기전망지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

- ◆ 「귀사의 올해 매출액 목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입니까?」라는 질문에 “지난해 수준(40.0%)” > “소폭 상향(24.3%)” > “소폭 하향(20.0%)” > “크게 하향(12.9%)” > “크게 상향(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 「귀사의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입니까?」라는 질문에 “지난해 수준(41.4%)” > “소폭 상향(21.4%)” > “소폭 하향(18.6%)” > “크게 하향(14.3%)” > “크게 상향(4.3%)” 순으로 조사되었다.
- ◆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원자재가격 상승(33.3%)” > “물가·금리 상승(27.8%)” >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5.1%)” > “원부자재 수급불안(11.9%)” > “주요수출국 경기침체(8.7%)” > “기업부담법안 입법(1.6%)” > “지정학적 리스크(1.6%)”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중국이 작년 12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부작용 있지만 전체

적으로 도움이 됨(47.1%)” > “영향 없음(27.1%)” > “도움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큼(15.7%)” > “큰 도움이 됨(7.1%)” > “부작용이 매우 클 것(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중국의 리오프닝이 귀사의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의 질문에 “영향 없음(67.1%)” > “긍정적 효과 있을 것(17.1%)” > “이미 긍정적 효과 발생(8.6%)” > “부정적 효과 있을 것(7.1%)”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사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중국 사업에 대한 귀사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의 질문에 “현재 수준 유지(87.1%)” > “계속 늘려갈 예정(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 ◆ 「중국의 리오프닝을 우리기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30.0%)” >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27.1%)” >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15.7%)” > “중국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10.0%)” = “기타(10.0%)” > “중국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7.1%)” 순으로 조사되었다.
- ◆ 「2023년 투자계획은 2022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의 질문에 “올해와 동일수준(66.7%)” > “올해보다 감소(24.2%)” > “올해보다 증가(9.1%)” 순으로 조사되었다.